

이상호 58년만에 실상 첫 메달... 동계 올림픽 새 역사

스켈레톤 윤성빈 썰매 종목 첫 금메달리스트 타이틀

이승훈 매스스타트 첫 챔피언·김민석 스피드 1500m서 첫 메달

원윤종팀 봅슬레이 4인승서 은메달 ... 아시아 선수 첫 쾌거

한국의 동계스포츠의 역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전과 후로 나누어지게 됐다.

한국은 안방에서 열린 평창올림픽에 선수 146명 등 221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한국 선수단이 내세웠던 목표는 금메달 8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4위에 오르는 것이었다.

결과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 5개의 금메달과 종합 7위이었던, 이번 평창올림픽은 금메달의 개수와 상관없는 역사적인 올림픽으로 남았다.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를 넘어 또 세계적인 '역사'가 된 기록이 쏟아졌다.

스켈레톤의 윤성빈이 역사의 한 축이다. 그는 남자 스켈레톤 1~4차 레이스에서 무려 3차례나 트랙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스켈레톤의 황제'로 군림하던 두쿠르스를 압도하면서 새로운 황제로 등극한 윤성빈은 아시아 선수 최초의 썰매 종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도 차지했다.

이승훈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2010년 밴쿠버 대회 남자 1만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 2014 소치 대회 팀 추월 은메달을 보유한 이승훈은 팀 추월에서 2위에 오르며 아시아 남자 빙속 선수 첫 3개 대회 연속 메달이라는 기록을 작성했다.

이 메달로 아시아 빙속 선수 최다 동계올림픽 메달 기록 보유자가 됐던 이승훈은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보태면서 자신의 최다 메달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기에 이번 대회에서 매스스타트가 처음 정식 종목이 되면서 이승훈은 매스스타트 초대 챔피언으로도 이름을 남겼다.

역사적인 은메달, 동메달 행진도 이어졌다.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500m에 출전한 김민석은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 종목 시상대에 오른 선수로 기록됐다.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 나선 이상호는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에서 은메달리스트가 되면서 우리나라 사상 첫 실상 종목에 메달을 안겨줬다. 올림픽 도전 58년 만에 탄생한 한국 스키의 첫 메달이다.

대회 마지막날이었던 25일에도 역사적인 은메달이 반짝였다.

원윤종-서영우-김동현-전정린으로 구성된 남자 봅슬레이팀이 4인승에서 1~4차 주행 합계 3분 16초 38로 독일 팀과 함께 공동 은메달에 성공했다.

기대했던 2인승에서 실패했던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던 4인승에서 이룬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봅슬레이 올림픽 메달을 보유했던 나라가 됐다.

4년 전 소치 대회를 통해 처음 올림픽 무대를 경험했던 여자 컬링 대표팀은 두 번째 출전한 평창올림픽에서 '깜짝 은메달'로 돌풍을 일으켰다.

혼자종목으로 꼽힌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의 메달에 이어 스키(스노보드), 스켈레톤, 컬링, 봅슬레이에서도 메달이 나오면서 평창올림픽은 한국 동계 스포츠의 새 역사를 열었다.

한국이 동계올림픽 6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매스스타트 이승훈

스노보드 이상호

스켈레톤 윤성빈

'팀 코리아' 하나된 무대 깊은 감동

만형 이승훈 스피드 스케이팅 후배들과 함께 메달 레이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장 안팎서 뜨거운 인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스포츠로 '하나'가 된 명장면들을 남기고 추억이 됐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팀 코리아(Team Korea)'를 외치며 안방에서 열린 역사적인 동계올림픽 무대에 섰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서 '팀'을 외치는 장면이 나오면서 오점이 남았지만 함께, 하나가 된 무대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

'만형' 이승훈이 이끈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팀은 말 그대로 '하나'였다.

이승훈이 명맥을 잇는다는 책임감으로 출전한 5000m, 1만m에서 묵묵히 레이스를 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만들어내자

후배들도 응답했다.

김민석이 아시아 최초의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500m 메달리스트가 됐고, 차민규는 올림픽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500m 메달을 품에 안았다. 김태운도 1000m에서 깜짝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달린 순간 더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서른 살의 만형이 앞에서 끌고 열아홉의 김민석 그리고 막내 정재원(17)이 밀면서, 남자 대표팀은 팀추월 결승 무대까지 내달렸다.

이승훈이 가장 저항을 많이 받는 앞자리를 주로 책임지면서 팀을 끌고 갔고, 두

후배들은 선배들을 따라 서로를 밀고 또 밀으면서 달렸다.

에타게 바라던 금메달 대신 은메달에서 멈춰야했지만 이들은 소치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은메달이라는 성과와 함께 '팀'을 보여줬다.

다르지만 같은 남북도 올림픽에서는 '하나'였다.

탄생까지는 진통이 있었지만 'COREA'라는 이름으로 남북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해 올림픽에 첫선을 보였다.

성적은 2득점, 28실점, 5전 전패, 하지만 초라한 성적에도 라커룸과 관중석은 매 경기 뜨거웠다.

서먹했던 선수들은 이내 하나가 되어 동료로서의 모습을 연출했고, 최종전 매진 사례 등이 기록되는 등 많은 이들이 관중석을 지키며 '꿀짜'를 응원했다.

북한 응원단도 함께하면서 경기장 안팎

에서 남북은 하나가 됐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와 일본 고다이라 나오의 국경을 넘는 우정이 만든 '하나'도 평창올림픽의 명장면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0m 올림픽 신기록을 깬 고다이라 뒤에서 올림픽 세 번째 질주에 나선 이상화, 목표했던 올림픽 3연패의 꿈이 고다이라의 벽에 막혔지만, 이상화는 치열했던 경기가 끝난 뒤 친한 친구로 고다이라의 품에 안겼다.

은메달이 확정된 뒤 올림픽 세 번째 메달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을 쏟던 이상화를 향해 고다이라가 두 팔을 벌렸고,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링크를 돌았다.

함께였기에 더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던 두 사람은 '우리'가 되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표할 명장면의 주인공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헬멧에 '건곤감리' ... 태극기로 문친 봅슬레이

한국 남자 봅슬레이 4인승 원윤종(33·강원도청), 김동현(31), 전정린(29·이상 강원도청), 서영우(27·경기BS경기연맹)가 모두 썰매에 오르며 '태극기' 모양이 완성된다.

파일럿 원윤종은 헬멧에 태극 문양과 '간', 브레이크맨 서영우는 '곤', 푸시맨 전정린은 '감', 김동현은 '리'를 새겼다.

태극기 모양의 썰매가 24일과 25일 강원도 평창올림픽 슬라이딩센터를 질주했고, 2018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4인승 시상식에 태극기가 게양됐다.

한국 봅슬레이가 올림픽에서 따낸 첫 메달(은메달)이었다. 체대 출신 네 명의 한국 봅슬레이 역사를 새로 썼다.

네 명 모두 호기심에서 봅슬레이를 시작했다.

체육 교사를 꿈꾸던 성결대 4학년생 원윤종은 2010년 학교에 붙은 '썰매 국가대표 선발전' 포스터를 보고 호기심에

선발전에 응시했고, 합격했다. 한국 봅슬레이 사상 최초의 파일럿이 탄생한 시점이다. 육상선수 출신인 과 후배 서영우도 2010년 봅슬레이 강습회에 참여한 뒤, 봅슬레이에 입문했다.

'성결대 체육교육학과 선후배'인 둘은 곧바로 '팀'을 꾸렸다.

'썰매 불모지'였던 한국에 마땅한 시설이 없어 바위가 달린 썰매를 타고 아스팔트 위에서 훈련하고 국외 전지훈련에서는 비용 문제로 썰매를 운송하지 못해 외국 선수들한테 장비를 빌리는 설움도 겪었다.

4인승 메달 획득의 영광 뒤에는 '연세대 체육교육과 선후배'의 희생이 있었다. 김동현은 2011년 과후배 전정린에게 봅슬레이를 소개했다.

한국 남자 봅슬레이는 정상적으로 2017-2018 월드컵 일정을 소화하면 2인승 2팀, 4인승 한 팀이 평창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다.

/연합뉴스